

名과 實의 관계로 본 孔子와 墨家の 言語觀

鄭 廣 薰*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孔子의 언어관
 - 2.1 正名論
 - 2.2 孔子에게 있어 名과 實의 관계
3. 墨家の 언어관
 - 3.1 <墨辯>에 드러난 묵가의 언어관
 - 3.2 墨家에게 있어 名과 實의 관계
4. 名實觀에 있어 공자와 후기 묵가의 차이점
 - 4.1. 논리와 변론을 보는 태도
 - 4.2 名과 實에 대한 인식의 차이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씨족 공동체의 불안정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殷나라가 멸망하고 봉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周代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 아래 인간 자신들의 세계로 점차 내려오게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신화적 사유는 자신의 의식과 그 대상을 기본 요소로 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인문적 사유로 대치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언어를 영물로 숭배하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로 인식했던 상고시대의 신화적, 주술적 언어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관도 사회성을 기본으로 하는 규약적 언어관에 점차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규약적 언어관은 언어를 名과 實, 이름에 부합하는 실재, 다시 말해 기호와 대상간의 약속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명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명과 실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문제는 인식 방식의 차이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이자 나아가 실제 현실의 제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은 많은 국가들이 침략, 병탄, 타협 등 갖가지 방법으로 할 거하던 춘추전국시대, 당시 철학과 가치관의 제작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백가들은 이 명과 실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진 않지만, 공자가 '正名'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여 언어관에 있어 그가 줄곧 중시해왔던 '微言大義'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 묵가가 과학과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거기서 유출된 명의 개념 문제를 제기한 점, 名家가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名學을 발전시킨 점, 순자가 공자의 정명론을 발전시켜 《荀子》<正名>편에서 사회적 규약으로서의 언어와 그 역할을 밝히고 현대 언어학적 의미의 기표와 기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점, 그리고 도가가 언어와 대상간의 불일치, 언어에 대한 懷疑를 주장한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先秦 시기 언어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교적 최근의 성과들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우선 廉丁三의 <先秦時期 언어관에 대한 小考—孔子, 墨子, 荀子を 중심으로>¹⁾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윤리적 측면을 일관되게 고려하면서 각 사상의 언어관을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와 윤리, 언어와 사회의 관계 문제를 공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묵가와 순자 역시 유가의 윤리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관을 더욱 치밀하게 구성했다고 본다. 김성희는 박사논문 《공자의 정치사상—언어 소통과 정치 행위의 문제를 중심으로》²⁾에서 정치적 행위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였다.

1) 《中國學報》 제49집, 2004, 39-59쪽.

2)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그에 따르면, '正名'을 주장한 공자가 상대에 따라 위선적인 언어 행위를 보이는 것은 천하를 지향하는 정치가로서 공자의 언어가 곧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추이잉셴(崔應賢)은 <목자의 언어관을 논함(論墨子的語言觀)>에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 언어적 수양,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목가의 언어관을 살펴보고,³⁾ 이경무는 <공자의 '언(言)'과 도덕적 실천>에서 공자가 말한 '言'의 의미를 먼저 세분한 다음, 이 '言'을 다시 '行', '正名', '仁' 등의 개념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⁴⁾

선진시기 제자백가의 언어에 대한 논의 중 본고에서는 공자와 목가의 언어관을 명과 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⁵⁾ 공자의 언어관에 대한 고찰은 그가 말한 '정명'의 의미를 살펴 본 후 《論語》의 문장들에서 정명사상이 반영된 부분을 뽑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목가의 언어관에 대해서는 특히 언어에 대한 변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후기 목가의 주장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논할 것이다. 아울러 공자와 목가는 명과 실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名實觀에 있어 두 사상의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 논할 것이다.

공자와 목가는 공통적으로 명과 실의 일치성을 주장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근거를 펼치며 명과 실을 일치시키는 과정 역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책 전체에 걸쳐 정치, 사회,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論語》와 그보다는 자신의 주장에서 논리적 모순이나 빈틈을 허락하지 않으려 한 후기 목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자와 목가 모두 자신의

3)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 2006.11, 160-164쪽.

4) 《哲學研究》 第109輯, 2009.2, 107-128쪽.

5) 일반적으로 목가는 공자의 활동시기와 거의 일치했던 목자를 포함하는 전기 목가와 맹자 이후시대의 후기 목가로 나뉜다. 전·후기 목가 중 명에 대한 측면을 논한 변설들은 후기 목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목가는 주로 후기의 목가를 말한다. 馮友蘭은 <經> 上下, <經說> 上下, <小取>, <大取>의 여섯 편이 지어진 시대를 따로 논하면서, 누구보다도 변설을 좋아한 맹자가 목가의 변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여섯 편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이들이 모두 맹자 이후 전국시대 후기의 저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馮友蘭, 《中國哲學史》(香港: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92), 86쪽.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언어관과 명실의 문제에 부닥쳤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사상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명실관의 차이를 논리와 변론에 대한 근본적 태도의 차이 그리고 명실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2. 孔子의 언어관

2.1 正名論

공자의 언어관은 ‘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한 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랬듯이, 공자 역시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의견들을 변설하기 위해 여러 제후국들로 동분서주하였다. 이 때 공자가 머릿속에 늘 모범으로 간직해 두면서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바로 혼란에 빠지기 이전 周나라의 모습이었다. 즉, 공자에게 있어 주나라는 하나의 이상이었던 기 때문에, 당시의 혼란한 사회는 禮, 樂, 制度 등 모든 면에서 주대의 모습을 되찾아야 했고, 주례에 어긋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魯나라의 季氏가 천자가 아닌 제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후의 악무인 六佞이 아니라 천자에게만 어울리는 八佞의 악무를 쓴 것에 대해 공자가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 점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주장은 늘 주나라라는 이상을 염두에 두었으며, 아래에서 논의할 정명론 역시 공자가 추구하려 했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를 하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자 子路가 했을 때,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자로가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께서 국정을 돌봐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서는 무엇을 먼저 하실 계획이신지요?”라고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잘못 쓰인 이름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하였다. 자로가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서는 너무 진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요?”라고 하니,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참으로 경솔하구나! 군자는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이름을 쓰지 않으면 말이 순리적이지 못하고, 말이 순리적이지 못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며, 일이 성사되지 못하면 나라의 예악과 제도를 일으킬 수 없다. 예악과 제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의 적용이 어긋나고, 형벌의 적용이 어긋나면 백성들이 어디다 손발을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고로 군자는 이름을 올바르게 써야만 말할 수 있게 되고, 순리적으로 말을 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게 된다. 군자는 자신의 말에 조금이라도 대충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⁶⁾

공자가 ‘정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정명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명’이 바로서지 않음으로 인해 점점 커져가는 폐해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후 역시 ‘명’의 올바른 정립이 가장 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공자는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부정형의 논리를 점점 심화시킨다. ‘이름 → 말 → 일 → 예악과 제도 → 형벌 → 백성들의 피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심과 정점은 ‘예악과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악’을 중시했던 공자에게 ‘이름’은 처음부터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당위와 이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바르지 않은 이름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그가 생각하는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으로 설명한 것이다. 정치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어나가는 행위라 할 때, 정치는 단순히 조정의 일이나 정치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법제도, 규범 등 사회유지에 있어서의 전반적 필요조건들을 만들고 적용시켜나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

6) 子路曰“衛君待子而爲政，子將奚先？”子曰“必也正名乎。”子路曰“有是哉！子之迂也。奚其正？”子曰“野哉，由也！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論語》<子路>。본고의 《論語》 원문은 楊伯峻, 《論語譯注》(北京: 中華書局, 1988)를 따랐으며, 우리말 번역은 이 책의 원문과 譯文, 주석을 주로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야 하는 것이 바로 정명이고, 공자에게는 정명이야말로 다른 모든 행위의 근본이자 기준이었다.

공자가 말한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름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가 “君君, 臣臣, 父父, 子子”이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양식이 많다한들 내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⁷⁾

여기서 같은 글자의 앞쪽 ‘군신부자’를 뒤쪽 ‘군신부자’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도구, 즉 기표로 보고 뒤의 군신부자는 앞의 군신부자를 설명해주는 의미 또는 개념의 부분으로 본다면, 위의 구절은 간단하게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이요,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자식은 자식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치 않을 만큼 간략한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각지를 주유하며 많은 변론을 통해 자신만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두 번째 군신부자는 단순한 일반 개념이 아닌, 그 의미를 넘어선 부연의 의미, 이차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함축적 의미는 공자에게 있어 당위적 의미로 표현된다.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쪽의 ‘군신부자’는 ‘名’(이름)이 되고 뒤쪽의 군신부자는 ‘正’(바로잡기)의 의미가 된다.⁸⁾ 임금은 반드시 임금다워야 하며, 임금이라고 명명된 이상

7)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 臣臣, 父父, 子子。”公曰“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論語》〈顏淵〉。

8) 이와 관련하여 廉丁三은 공자가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주장을 펼 때 중요했던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한다. 즉 군주답지 못할 경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군주다울 수 있도록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廉丁三, <先秦時期 언어관에 대한 小考—孔子, 墨子, 荀子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49집, 2004, 42쪽.

명명된 임금은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임금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신하, 아버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름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적용되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위의 문장은 극단적인 동어반복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의 ‘군신부자’ 네 글자가 당위의 의미가 되면서 논리적 해석의 범주를 확실히 벗어나게 된다.

공자의 ‘명’에 대한 강조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상뿐 아니라 추상적 개념에도 적용된다. ‘達(통달함)’과 ‘聞(이름이 남)’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보는 제자 子張에게 공자는 두 용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자장이 “선비는 어떠해야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고 물으니, 공자가 이르기를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통달은?”라고 하였다. 자장이 대답하기를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도 반드시 그 이름이 들리고, 대부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이름이 들리는 것입니다.”고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그것은 聞이라고 하지 達이라고 하진 않는다. 무릇 통달했다 함은 바탕이 곧고 바르고 일에 있어서는 의리를 따지고 타인의 말을 잘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며 타인에게 겸허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나라의 관직을 맡아도 대부의 집에 있어도 반드시 통달하게 된다. 이름이 들린다 함은 얼굴빛은 인자함을 가져도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인의를 자처하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든 대부의 집에서든 이름만 들리게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⁹⁾

위에서 보이듯이 공자는 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곧바로 바로잡아주면서 ‘達’을 ‘聞’의 경지보다 훨씬 더 높은 군자의 덕목으로 간주한다. 의미의 차이를 무시한 용어의 사용은 개념의 혼란을 불러오고 나아가 개념의 대상이 되는 실재의 판단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공자는 이런 사태를 미리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達’의 의미를 ‘聞’과 동일시 할 경우 ‘聞’의 경지 밖에 오르지 못한 소인이 ‘達’의 경지에 올랐다고 오판하여 진정한 ‘達’의 모습을 지닌 군자

9) 子張問“士何如斯可謂之達矣?”子曰“何哉, 爾所謂達者?”子張對曰“在邦必聞, 在家必聞。”子曰“是聞也, 非達也。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在邦必達, 在家必達。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義。在邦必聞, 在家必聞。”《論語》<顏淵>.

는 사라지게 되리라고 공자는 염려한 것이다. 그 결과 군자답지 못한 군자가 마치 진정한 군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름에 부합되지 않는 '군신부자'가 가져올 병폐와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이 공자에게 있어 당위적 개념이 함유된 '명'의 정립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든 '達'과 '聞'의 의미차이에 대한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공자의 당위적 개념은 정치적 측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일관된 논리적 주장보다는 짚막한 문답과 경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논어》는 책 전체가 '명'의 올바른 의미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공자가 생각하는 당위의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벤자민 슈월츠의 통찰대로, 공자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전체로서의 《논어》의 관심과 전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공자에게는 주나라가 이미 정해진 이상의 사회였고 정치, 예악 등도 그 기준에 맞게 회귀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 모든 인식론적 대상들은 그 이름에 맞게 응당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들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했으며, 그가 구체적 대상 뿐 아니라 추상적 개념에까지 '정명'을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2 공자에게 있어 名과 實의 관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자에게 있어 '명'은 정치적·도덕적 측면이 강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이었다. 여기에 이어지는 문제는 이러한 개념과 그 대상인 현실과의 관계이다. 명을 반드시 올바르게 정립시켜야 한다는 공자의 의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위를 근거로 정립된 명은 이상으로 자리 잡은 채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실

10) 벤자민 슈월츠(Benjamin Schwartz),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서울: 살림출판사, 1996), 144쪽.

이 그 명에 맞추어져야 한다. 명은 일반적 개념을 넘어서 당위적 개념으로까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며, 현실은 이 당위적 개념과 일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명은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치이고, 현실의 대상은 변화를 통해 응당 그 절대치에 맞춰져가야 한다. 위에서 예로 든, 응당 그래야만 하는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군신부자, 선과 덕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정치, 통달함에 이르지 못한 군자는, 그 반대의 모습 즉 자신의 이름에 부합하는 모습을 되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춘추시대의 혼란 타파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공자는 확고부동한 이상형을 세우고자 했고, 그것의 전체적 본보기는 주대였으며, 현실생활에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주대의 예악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언어적 측면에서 반영한 주장이 바로 이름에 걸맞게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당위적 개념(정명)의 정립, 나아가 그것과 현실과의 일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벤자민 슈윙츠의 언급을 빌리자면, “인류의 경험 속에서 이미 실현되었던, 진정으로 규범적인 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보편적 문명에 자신이 속한다는 공자의 확신은 예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좋은 사회가 갖는 제도와 규범적 역할들을 기술하는 데에 사용된 기성의 언어가 사물들의 규범적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또 다른 신념을 그로 하여금 갖게 했다.”¹¹⁾

공자의 옛 제도와 문장에 대한 존중이 한 마디로 집약되어 있고, 심지어 창작이라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述而不作”(《論語》<述而>) 역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식대상에 대한 개념은 언어적으로 오래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적용시키려 하는 시도를 경계하고 현실도 이에 맞추어 바로잡는 것이 곧 공자 자신의 역할이었다. ‘명’의 정립이라는 문제로 이를 해석한다면, 명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개념들을 서술은 하되, 이를 초월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의를 창작해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올바른 개념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그에 맞춰가야 하는 ‘실’의 모습도 당연히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앞서

11) 벤자민 슈윙츠, 같은 책, 145쪽.

언급한 ‘聞과 ‘達’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는 공자의 모습을 보면, 그가 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지으려하지 않고, 그보다는 실체가 그에 부합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과 실, 언어와 개념에 대한 그의 철학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실체로 다가오는 구체적 사물 뿐 아니라 보는 이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공자는 《논어》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층위의 인식대상들을 언급하면서 명과 실의 문제를 다룬다. 원래 모난 술잔인 ‘觚’가 모나지 않으면 그것을 ‘觚’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꾸짖은 것¹²⁾, 앞서 설명한 “君君, 臣臣, 父父, 子子” 그리고 ‘聞과 ‘達’의 차이에 대한 강조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명과 실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¹³⁾ 물론 공자가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인식대상들을 빠짐없이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의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찌면 그는 이미 이름이 정해진 모든 구체적, 추상적 인식대상들에 대해 일차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뿐 아니라 그 속의 당위적인 개념까지 서술한 거대한 ‘概念辭典’의 발행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공자에게 있어 명과 실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라는 실천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며 마땅한 도리를 제시한 공자가 사람들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자 품평의 근본이 되는 말과 행동의 관계를 논하지 않을 순 없었으며, 실제로 《論語》에는 말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서 보인다. 아래의 예들이 바로 그렇다.

12) 子曰：“觚不觚，觚哉！觚哉！”《論語》<雍也>。

13) 김성희는 박사논문에, ‘觚’와 같은 특정 사물과 다르게 인간은 여러 개의 이름과 여러 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공자의 사상에서는 도리어 ‘위선’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공자의 이런 ‘위선’을 정치적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본고의 주제와 연관시키면 이는 인식대상의 성격에 따른 명과 실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성희, 《공자의 정치사상—언어 소통과 정치 행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0-13쪽 참고.

옛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¹⁴⁾

군자는 말에는 어눌해야하고 행동에는 민첩해야 한다.¹⁵⁾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들으면 곧 그의 행동을 믿었다. 지금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들으면 곧 그의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宰予가 나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놓은 것이다.¹⁶⁾

‘말’은 곧 여러 ‘명’들의 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식대상을 표현한 단어와 추상적 개념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온전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언어 혹은 말이 된다. 공자에게는 여러 ‘명’들의 조합인 말 역시 올바라야 하는 대상이고, ‘실’의 확대된 형태인 행동은 당연히 말에 부합해야 한다. ‘명과 실’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약속이 되고, 말하기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표현 방식과 전후 사정은 다르지만 위의 예들은 모두 말과 행동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예에서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행동을 엄두에 둔 신중함의 표현이며, 두 번째 예에서는 모름지기 군자의 말은 어눌해야 한다는 다소 과장된 수사로 말의 중요성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이는 ‘명’을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공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명’이 이상이라면 그것의 확대된 형태인 ‘말’ 역시 바꿀 수 없는 이상이자 당위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인용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제자 宰予를 꾸짖는 내용이다. 이 문장을 보면 공자가 말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말’만 듣고 ‘행동’을 믿었다는 건 공자에게 있어서는 말 자체가 행동을 규정하는 이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명에 부합하지 않는 실에 대한 비판이 제자 재여에 대한 꾸짖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재여가 나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놓았다”는 그의 말은 명과 실, 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14) 子曰：“古者言之不出，恥窮之不逮也。”《論語》〈里仁〉。

15) 子曰：“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論語》〈里仁〉。

16) 子曰：“始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於予與改是。”《論語》〈公冶長〉。

제자 재여 때문에 부정되어야 하는 사실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인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墨家の 언어관

3.1 <墨辯>에 드러난 묵가의 언어관

묵자를 창시자로 하는 묵가는 유가, 도가, 법가 등과 함께 제자백가를 대표하는 사상 중의 하나로, 흔히 兼愛, 節用, 非攻 등 사회적, 도덕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이는 百家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가가 바로 묵가의 사회적 폐해를 언급하며 그들을 비판하고, 史書에서도 묵가를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서술했기 때문일 것이다.¹⁷⁾ 하지만 묵가는 사회적, 도덕적 측면 외에 과학적, 논리학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많은 변론들을 남겼다. 특히 후기 묵가의 주장은 《墨辯》이라 불릴 만큼 논리와 변론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 일찍이 조셉 니담은 《中國의 科學과 文明》에서 묵가의 과학적 측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과학과 관계되는 변론들이 집중되어 있는 <經> 上·下와 그 해설인 <經說> 上·下의 대부분을 후반부에 따로 떼어 실었다. 이러한 조셉 니담의 서술은 유가와 도가 등 다른 사상

17) 맹자는 楊朱와 墨子를 함께 묶어 노골적으로 비판하곤 했다. 묵자의 兼愛 사상에 대해서 그는 이 사상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고(墨氏兼愛, 是無父也) 양주가 군주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수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無父無君, 是禽獸也. 《孟子》<滕文公下>). 그리고 묵가의 한 사람인 夷之에 대해서는, 그가 절검을 주장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른 것이 스스로가 천하게 여기는 바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然而夷子葬其親厚 則是以所賤事親也. 《孟子》<滕文公上>). 《史記》에서는 묵자에 대해 “묵적은 아마 송나라의 대부일 것이며 방어에 능하고 절용을 하였다. 혹자는 공자 때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그 후에 살았다고도 한다.”(蓋墨翟, 宋之大夫, 善守禦, 爲節用. 或曰並孔子時, 或曰在其後)라고만 서술했다. 묵자의 가장 특징적인 사회 성향 중 하나로 ‘節用’을 든 것이다. 《史記》<孟子荀卿列傳>(北京: 中華書局, 1982년판, 제7책), 2350쪽.

에 대한 설명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가 묵가의 과학적 측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를 반증해 준다.¹⁸⁾

언어관과 관계되는 묵가의 변론 역시 <經> 上·下와 <經說> 上·下에 집중되어 있으며¹⁹⁾, 이 중에는 실제로 ‘名’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언어관을 표명한 것도 있고, ‘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언어관이 확연히 드러나는 변론들도 있다. 이러한 묵가의 언어관은 인식대상의 개념과 분류를 핵심으로 한다. 인식대상을 몇 단계의 범주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것이다. 관련 변론들을 통해 묵가의 언어관을 살펴보자.²⁰⁾

經 名. 達. 類. 私: 명은 개괄적이며 분류적이고 또 사적이다.

經說 名. 物. 達也. 有實必待之名也. 命之馬. 類也. 若實也者必以是名也. 命之臧. 私也. 是名也止於是實也: 名 중에서 ‘物’이란 개괄적인 名이다. 그 분류의 실체가 있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 名을 갖는다. ‘馬’라 명함은 분류의 名이다. 그 분류의 실체가 있는 것은 모두 반드시 그 名을 갖는다. ‘臧’(남자의 이름)²¹⁾은 사적인 것이다. 이 명은 그 실체에 한정된다.(<經>上 78)

18) 이 점은 “중국 과학사의 최대의 비극은 도가의 자연주의적 통찰이 묵가의 이론과 결합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저자 자신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셉 니담(Joseph Needham), 《中國의 科學과 文明》(서울: 乙酉文化社, 1991), 259쪽.

19) 현존하는 《묵자》 15권 71편의 판본에는 목록부분이 빠져 있다. 청대의 畢沅은 고증을 통해 새로이 목록을 정하면서 제 10권에 있는 <經> 上·下와 <經說> 上·下를 순서대로 40, 41, 42, 43편으로 정하였다. 《晉書》<魯勝傳>의 《墨辯注叙》에서 “《墨辯》에는 상·하 <經>이 있고, <經>에는 각각 說이 있어 모두 4절이다”고 한 것은 바로 이 4편이다. 따라서 《墨辯》은 <經> 上·下, <經說> 上·下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金學主, 《墨子》(서울: 민음사, 1988), 68쪽 참고.

20) 여기서 인용하는 《墨子》의 우리말 해석은 조셉 니담의 《中國의 科學과 文明》 한국어 번역본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영어 원서의 해석을 함께 대조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원문의 표점과 번역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조셉 니담의 해석을 따른 이유는 그 역시 馮友蘭, 譚戒甫, 마스페로(Maspero), 포르케(Forke) 등 묵가 사상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어 여타의 해석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구절의 경우에는 염정삼 주해, 《묵경》(서울: 한길사, 2012년판)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은 《墨子》 중 <經> 上·下와 <經說> 上·下에 <大取>, <小取> 편을 함께 뽑아 《墨經》이라는 이름으로 주해를 달았다.

21) ‘臧’은 古代의 한 특정 남성노예의 이름으로 후대에는 남성노예 혹은 노예의 통칭이 되었다. 여기서는 문맥상 특정 남성노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名’의 종류를 나열한 이 변설은 사실 ‘명’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우선 ‘개괄적인 명’이라고 한 부분은 개념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다양한 사물의 공통성을 뽑아 개괄하여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명을 부여했을 때 그 명을 ‘達(達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達名’ 아래에서 또 하나의 공통성을 묶어 새로운 명을 만든 것이 ‘類(類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체를 곧바로 지적할 수 있는 이름이 ‘私(私名)’이다. 분류의 측면에서 보면 ‘達名’은 가장 큰 범주이다. 수많은 사물들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達名’이다. 예를 들어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명명한 것으로 ‘達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에 통한다”는 의미의 ‘達’을 가장 상위 범주의 용어로 쓴 것은 모든 개별 사물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속성을 고려한 명명 방식이다. 다음으로 ‘類名’은 위의 ‘達’에 해당하는 범주 아래에서 본질이나 속성이 서로 같은 사물을 다시 나누어 명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 혹은 ‘유사함’을 의미하는 ‘類’에는 바로 그 유사함으로 인해 구분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예로 든 ‘馬’가 곧 이러한 ‘類’의 개념에 따라 명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私名’은 원문에서 그대로 표현되었듯이 바로 그 ‘특정 실체’(是實)에 한정되는 이름이다. 공통된 속성이나 본질을 제외한 그 자체의 고유 특성만이 이 ‘私名’의 근거가 된다. 특정한 ‘말(馬)’에 그 말만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그것이 곧 ‘私名’이다.

經 知其所不知. 說在以取名: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名’에 의해서 선택하여 취하는 것(以取名)에 나타나 있다.

經說 智. 夫雜所智與所不智而問之. 則必曰. 是所智也. 是所不智也. 取去俱能之. 是兩智之也: 아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로 혼합시켜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보자.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다’ ‘이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취사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양편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된다.(〈經〉下 48)

이 변론은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대상의 성격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즉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알고 있는 대상과 알고 있지 않은 대상 양자 모두의 성격에 대한 파악을 전제해야 한다. 여기서도 '名'은 개념이나 범주와 관련된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名'에 따라 인식대상을 파악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여기서 선택하여 취하는 것은 곧 분류이자 범주의 확정이다. '명'과 인식대상의 본질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만 사물에 대해 안다거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취사와 분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다거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목가가 말하는 '法' 역시 '개념'이라는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래의 변설은 특히 하위개념의 형성과 분류의 과정까지 말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經 一法者之相與也盡類. 若方之相合也. 說在方: 하나의 '법'에 따르는 사물의 상호 동일성은 그런 종류의 일체의 사물에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정사각형은 어느 것이나 동일하다. 그 이유는 '정사각형(方)'에 표시되어 있다.

經說 一方盡類. 俱有法而異. 或木或石. 不害其方之相合也. 盡類猶方也. 物俱然.: 정사각형의 것은 모두 같은 '법'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자체)은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은 나무로 되었고 어느 것은 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이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이 서로 호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류에 속해서 모두가 정사각형이다. 모든 것은 다 그러하다.(〈經〉下 65)

'법'에 의한 사물의 동일성은 일체의 사물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어느 것이나 동일하다. 즉 같은 대표성으로 묶여질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은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동일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식대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면밀한 관찰 후 동일성이 포착되지 않은 경우는 인식대상들의 법, 즉 대표성의 총합 혹은 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일성을 찾기 위한 위와 같은 절차들을 밟아감과 동시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분류의 방법이다. 동일성을 찾는다는 것은 차별성을 전제로 한다. 대표성, 동일성에 필연적

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제의 차별성을 ‘다른 길’(別道)²²⁾로 새롭게 인식한 후 여기서 다시 동일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상위 동일성(상위개념) 아래 하위 동일성(하위개념)이 형성되는 분류의 과정이 된다. 정사각형을 예로 들어보자. 사각형은 실제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각형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동일성은 곧 “네 변과 네 각으로 되어 있으며 네 각의 각도가 모두 직각”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형성한다. 그런데 사각형이라는 동일성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차별성은 다시 동일성으로 전이된다. 즉, 관찰의 과정을 통해 사각형이라는 동일성 아래 다른 사각형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라는 차별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차별성은 동시에 다시 동일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사각형의 개념 아래 정사각형이라는 하위 개념이 설정되고, 이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통해 또다시 하위 개념이 형성되어 분류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후기 묵가의 언어관은 인식대상의 개념과 분류가 핵심이었으며, 인식대상에 ‘명’을 부여하는 과정은 곧 실제의 다양한 모습에 근거하여 그것의 동일성을 찾는 과정이었다.

3.2 墨家에게 있어 名과 實의 관계

이제 명과 실의 관계에 대한 묵가의 주장을 보자. 앞에서 논한 세 변론 역시 그 이면에는 인식대상 또는 실재(實)에 대한 이름(名)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達名’, ‘類名’, ‘私名’은 비록 범위는 다르지만 모두 사물의 공통성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공통성에 부여하는 명의 수위가 다를 뿐이지 세 가지 명 모두 실제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일치한다. 아울러 두 번째 변론에서의 ‘知’와 세 번째 변론에서 ‘法’의 형성과정 역시 실제 인식대상의 본질이 그것의 ‘명’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역시

22) <經>上 95에 나오는 개념이다.

명과 실의 관계 속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명과 실의 관계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된 변론을 보자. 아래의 두 번째 변론은 <經>과 <經說>이 아닌 <小取>에 포함된 명제이나, 명과 실이라는 말을 직접 써서 명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변론이라 할 수 있다.

經 知. 聞. 說. 親. 名實合. 爲: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는 것(聞), 그것에서 推論을 내리든가 혹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說),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親), 名과 實의 조화, 그리고 행위(爲)를 포함한다.(<經>上 80)

以名舉實: 이름으로써 진실을 헤아린다.(<小取>)

또 다른 '經'에는 '以名舉實'의 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변론이 나온다.

經 舉, 擬實也: '舉'는 실을 헤아려 말해보는 것이다.

經說 舉, 告以文名, 舉彼實也: '舉'에 대하여 설명한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에 해당하는 實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다.(<經>上 31)²³⁾

여기서 '擬'는 《易》<繫辭傳> “성인은 천하의 깊은 곳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을 헤아리고 그 사물의 마땅함을 본받는다.”(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形容, 象其物宜)에서의 '擬'와 같은 뜻이다. 즉, 가늠하고 헤아려보는 것이다. 이는 '명'과 '실'의 관계를 확인하는 인식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胡適은 '人'의 예를 들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人'자를 가지고 사람의 모든 특징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을 보면 '人'의 개념이 떠오르고, 곧바로 그가 하나의 '人'임을 알게 된다. 이 '人'의 개념을 기억하면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나 상태 등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²⁴⁾ 위 변론들에서 묵가는 명이 실의 공통성에서 추출된 개념이기 때문에 명은 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며, 이 명과 실이 조화되어야

23) 조셉 니담이 선별한 묵가의 명제들에는 이 경과 경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의 해석은 엄정삼 주해, 《묵경》(서울: 한길사, 2012), 153-154쪽을 따랐다.

24) 胡適, 《中國古代哲學史》(二)(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1年版(1982)), 49쪽.

참다운 지(知, 識)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위의 '경설'에서 '文名'의 의미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꾸며진 이름'이라는 해석과 원래는 '之名'인데 '文名'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염정삼은 淸末의 경학자 孫詒讓이 두 가지 해석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을 언급함과 아울러, <經說> 편의 '之'자가 대부분 '文'으로 잘못 기록된 것에 착안하여 위의 '文名' 역시 '之名'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²⁵⁾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擧'를 '실을 헤아리는' 인식의 과정으로 보고, '名'을 이미 개념화·범주화된 후의 '이름'으로 본다면 '文名'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文'은 곧 '가지런히 정리된, 개념화된'의 의미로 볼 수 있고, '文名'은 곧 그렇게 정리된 이후의 '이름'인 것이다. 그리고 '개념화된 이름'(文名)이 실제의 인식대상(實)과 일치하는지 헤아리는 인식론적 과정이 곧 '擧'이다.

목가는 명과 실의 일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명실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명과 실의 관계를 논한 위의 변설 바로 다음에 아래의 변설을 잇고 있다.

經 言出擧也: 말은 명칭(擧)의 표현이다.

經說 故言也者. 諸口能之. 出名者也. 名若畫虎也. 言也謂言. 猶名致也.: 그러므로 말이란 모든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을 말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명이란 그림에 그린 호랑이와 같은 것이다(즉 진짜 호랑이와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여차여차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名은 物에 달한다(즉 物에 적합하다).(<經>上 32)

앞의 예문에서 언급한 대로 '擧'가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어(告) 그것의 실재를 헤아리게 한다는 의미라면, 위의 문장 역시 언어의 효용과 형성과정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변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실(실재)을 밝혀주는 명이 몇 단계의 개념추출과정을 거치고 많은 수사적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25) 염정삼, 앞의 책, 154-155쪽.

도 결국 그 대상과 일치할 수는 없다. “명이 물에 달한다”는 의미는 물에 적합할 뿐 물과 동일해 질 수는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호랑이 그림을 진짜 호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²⁶⁾ 인식대상과 개념을 끊임없이 일치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면 결국 언어 내부의 논리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묵가 이론에 있어 논리적 측면이 강한 이유는 위와 같은 그들의 언어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名實觀에 있어 공자와 후기 묵가의 차이점

4.1. 논리와 변론을 보는 태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자와 묵가의 명실관은 그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공자에게 명과 실의 문제는 곧 도덕적, 사회적 당위의 문제였다. 그러나 묵가에게 있어 명과 실의 문제는 그보다는 논리적 분석의 문제였다. 특히 후기 묵가에게는 명실의 문제가 곧 논리의 문제로 이어지고 명과 실의 불일치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역시 논리적 추론에 근거하게 되었다.²⁷⁾ 실제로 본고에서 주로 언급한 <經> 上下, <經說> 上下, <大取>, <小取> 여섯 편은 묵가 중에서도 논리적인 문제가 핵심을 이루는 후기 묵가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논어》는 전체가 논리학적 주장이라기보다는 마땅히 그러

26) 이 점은 “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常道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常名이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라는 말로 언어의 완벽성에 회의를 가졌던 노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27) 이 말이 묵가 전체가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엄정삼의 주장에 따르면, 공자의 언어관 뿐 아니라 묵가 계열의 언어논리학과 순자의 정명 이론도 모두 윤리적인 명제를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를 혼란스러워하면서 후기 묵가는 ‘살아남기’의 한 방안으로 언어학적으로 세련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廉丁三, <先秦時期 언어관에 대한 小考—孔子, 墨子, 荀子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49집, 2004, 42, 48쪽.

해야 한다는 당위의 성격이 강하며, 그래서 문장도 변론이 아닌 경구와 짧은 대화가 많다. 실제로도 《논어》에는 논리와 변론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이 보인다.

공자가 말했다. “논리가 충실한 사람을 추앙한다면, 그런 사람은 군자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근사한 것인가?”²⁸⁾

비록 상대에게 되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공자의 이 말이 변설만 잘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알프레드 포르케는 공자와 노자 그리고 묵자의 논리에 대한 태도를 철학적으로 비교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자와 노자는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전혀 증명하지 않거나 또는 매우 불완전하게 증명된 주장의 형태로 치장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위상이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정도로 컸었기 때문이다. 묵자는 진정한 철학자의 방식에 따라 모든 그의 주장들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만 했다.²⁹⁾

공자에 비해 묵자가 논리와 증명에 근거하는 철학자의 모습에 훨씬 가깝고 공자의 경우는 논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당위와 이상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논리와 변설로의 경도를 비판하는 모습은 후대의 맹자에게서도 보인다.

공도자가 물었다. “밖의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께서 논쟁하기를 좋아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신지요?”

맹자가 답했다. “내가 어찌 논쟁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³⁰⁾

28) 子曰：“論篤是與，君子者乎？色莊者乎？”《論語》〈先進〉。

29) 알프레드 포르케(Alfred Forke) 저, 양재혁·최혜숙 역주, 《중국고대철학사》(서울: 소명출판, 2004), 536쪽.

30) 公都子曰，“外人皆稱夫子好辯，敢問何也？”孟子曰，“予豈好辯哉？予不得已也。”《孟子》〈滕文公下〉。

주지하듯이 《맹자》는 짝막한 구절들이 반복되는 《논어》보다 변론이 훨씬 많고 문장도 그만큼 길다. 그런데도 맹자는 스스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고도 분명하게 말한다. 이를 통해 보면 확실히 유가는 논리나 변론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후기 묵가의 경우는 논리와 변론의 방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져다쓰고, 자신들의 주장을 《墨辯》이라는 책명으로 엮을 수 있을 만큼 변론을 즐겼던 것이다. 그리고 논리 자체에 대한 유가와 묵가의 현저한 태도 차이가 곧 두 사상의 名實觀에도 차별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4.2 名과 實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명과 실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공자와 묵가는 모두 둘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언어로 표현하는 명과 실제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곧 죽은 언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곧 생명이나 다름없었던 제자백가들에게 언어와 인식대상의 관계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며 공자와 묵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문제에서 공자는 현상에 앞서는 언어적 이상이 있음을 보여준 반면, 묵가는 언어가 실제에 앞서 전통 속에서 이미 선형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즉, 명과 실의 관계에 있어 실제에 선행하는 명의 당위성, 이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래의 글은 묵가의 명실관이 공자의 정명론에서 보이는 명실관과 결코 일치할 수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공자의 정명론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변론이라 할 수 있다.

經 信。言合於意也：신념이란, 말이 있음직한 豫想(億)과 일치할 때에 생긴다.
 經說 不以其言之當也。使人視城。得金：말이 (소위) 도덕과 합치해 있는가 어떤가는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마을에 (이를테면, 누군가가 황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보내서 보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황금이 입수되면 (설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문의 진실은 증명된 것으로 된다. (<經> 上 14)³¹⁾

위에서는 ‘當’이 ‘도덕’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글자 그대로 ‘당위’나 ‘마땅함’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위의 글이 당위적 개념을 중요시했던 공자의 정명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변론이라는 것은 ‘當’에 대한 부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명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재에 있지 명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공통성을 추출하여 만든 개념은 당연히 주관성이 배제된 상태이다. 이렇게 본다면 묵가에게 있어 명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재, 즉 명의 대상이 가변적인 만큼 명의 개념 역시 가변적이다. 대상은 개인,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대표하는 명의 개념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명과 실재는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자의 명실관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 일국의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때, 공자의 입장에서 만약 그 왕이 공자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왕이 아니다. 따라서 그 왕은 왕이라는 명에 부합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반면 묵가는 그 왕이 어떠한 당위적 개념과 그 개념에 맞는 실재성을 띄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왕의 개념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객관적 상황을 무시한 채 당위적 개념에 명과 실재를 일치시키려고 한다면 실재는 명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실관계에 있어 공자와 묵가의 위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공자에게 있어 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차의미와 함축적인 이차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인 반면, 묵가가 말하는 명은 일차의미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가치관의 부재와 혼란으로 원래의 궤도를 이탈한 춘추시대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

31) 청말의 묵자 연구자인 孫詒讓은 위의 “不以其言之當也”에서 ‘不’을 ‘必’의 오기로 보았고, 葉正삼 역시 이를 따라 “반드시 그 말의 마땅함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했다. 葉正삼, 앞의 책, 105-107쪽. 그리고 吳敏江은 ‘不’을 ‘不’으로 해석하여 이 부분을 “信이란 그 말의 마땅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는 사실로 증명하는 것에 있다”(不僅在其言之當, 尤在有事實證明)라고 풀이했다. 吳敏江 撰, 孫詒讓 點校, 《墨子校注》(北京: 中華書局, 2006), 483쪽 주석41.

농기 위해 주나라라는 이상을 늘 염두에 두었던 공자는 사물의 공통성 추출과 정립이라는 일차의미만을 지닌 명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명은 도덕성과 당위성이 부여된 이차의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³²⁾ 그리고 이 이차의미의 올바른 정립(정명)을 곧 혼란타파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했던 것이다.³³⁾

반면 그들의 변설에서 드러나듯이 과학과 논리에 관심을 두었던 묵가에게 개념의 주관적인 조작인 함축의미의 정립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급변하는 당시의 정세 속에서 당위성과 그 당위성이 절대시되는 이차의미로서의 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명과 실재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묵가는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묵가는 공자가 이차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명의 정립을 위해 노력한 것과 달리, 명이 형성되는 과정 즉 인식대상에 대한 관찰과 일반성의 추출, 분류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개념의 형성과정 등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묵가의 언어관에서는 당연히 대상 또는 실재가 명 형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공자와 묵가의 명실관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명과 실’에 대한 관점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공자에게 이 두 가지는 그 범위만을 뿐 모두 도덕적, 사회적 당위에 맞아야 하는 것들이다. 많은 당위적 명들이 모여 당위적 언어가 되듯이, 이름에 맞는 실재가 확장되어 언어에 맞는 행동이라는 구체적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 명과 실에 대한 공자의 언급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명과 실에 대한 공자의 대표적 주장인 “君君, 臣臣, 父父, 子子”는 언어와 행동에 관한 그의 다른 언급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으며 하나같이 당위와 이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32) 郭湛波는 《先秦辯學史》에서 공자가 말한 명이 순전히 주관적인 당위개념이라는 이유로 공자의 정명을 논리가 아닌 윤리로 보았다. 尹武學, <墨子の名學에 대하여>, 《中國思想論文選集·諸子百家편(1)》(서울: 불함문화사, 1996), 45쪽.

33) 이 점에 대해 김근은 “외시의미에 국한되어 있던 용어들에 주관적 함축의미가 부여되고 이 함축의미가 다시 외시의미의 차원으로 개념화되어 기의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변화가 바로 신화로의 전이가 되며 이런 의미에서 공자의 정명은 메타 언어적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는 주장을 한다.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서울: 민음사, 1999), 94, 96쪽.

그러나 묵가에게 있어 언어와 행동, 명과 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묵가 역시 언어와 행동에 관해 적잖은 언급들을 남겼으며, 이런 주장들은 공자에게 일관되게 보이는 당위적 언어관과 다를 바가 없다.³⁴⁾ 물론 그 당위가 어떤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언어와 행동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사상은 사실상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 묵가로 오면서 언어와 행동이라는 당위적 관심사가 퇴색되고 명과 실이라는 논리학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가 된다. 공자의 시대와 멀지 않은 초기 묵자 때와는 달리, 후기 묵가의 활동 시기는 흔히 3세기 전국시대의 한복판으로 여겨진다. 당시에는 정국이 혼란의 극에 달하면서 諸子의 사상 역시 변화를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학설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현실에 적응해갔다. 묵가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이러한 현실 적응이 언어와 행동이라는 당위적 측면과 명과 실이라는 논리학적 측면을 분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5. 나오는 말

이상으로 공자와 묵가의 언어관을 명과 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문헌에서 ‘명’은 이름(개념)과 명분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개념은 명과 대상체간의 직접적인 관계, 대상체에서의 공통성

34) 다음의 예들은 언어와 행동의 관계를 논한 《墨子》의 대표적 주장들이다. “뜻이 강하지 않은 자는 지혜에 통달하지 못한다. 말이 믿겨지지 않는 자는 실행을 다하지 못한다.志不疆者, 智不達, 言不信者, 行不果.”(<修身>), “말하는 데에는 힘쓰면서 실행하는 데에는 더디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務言而緩言, 雖辯必不聽.”(<修身>), “말이 충분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면 늘 하여도 좋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라면 늘 말해서는 안 된다.言足以遷行者常之, 不足以遷行者勿常”(<貴義>). 이상의 《墨子》 우리말 번역은 金學生, 《新完譯 墨子》(서울: 明文堂, 2003년)을 따랐다.

추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때의 명은 대상체를 직접 가리키는 일차기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명분은 일차기호에서 드러난 외시의미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확대, 부연되어 함축의미를 갖게 되면서 형성되는 이차기호라고 할 수 있다.³⁵⁾ 공자가 말한 명은 이 중에서 이차의미인 '명분'이라고 할 수 있고, 목자가 말한 명은 개념의 차원까지만 추상화된 일차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차적 의미를 가진 공자의 '명'이 일차적 의미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직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차적 의미의 부여라는 것은 일차적 의미로서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 역시 하늘 저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주체가 바로 공자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역사, 음악, 제도, 사상 등 사회유지의 기본조건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대였던 것이다.

당위적 가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 공자가 명의 의미를 당위로서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것 역시 훗날 다양한 해석을 도출한다. 공자 이후 경서의 의미를 파헤치고자 했던 많은 시도와 그에 따른 무수한 해석들,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방법론의 하나로 정립되어 거대한 학문의 흐름으로 이어져왔던 訓詁學은 공자의 정명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음양오행설을 절묘하게 끌어들이 의미의 왜곡과 도용을 일삼았던 漢代의 讖緯說은 해석의 다양성을 빌어 신화화, 조작화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사상이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유가, 유학, 심지어는 종교적 의미의 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되어 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목가의 사상은 전국 말기의 사회 동란 때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다. 소멸의 이유에 대해 벤자민 슈월츠는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목가 조직이 기성의 조직에 편입되지 못한 점, 그들의 운동이 청중들에게 확신감을 주는 일에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논리와 언어적 분석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名家' 전체의 쇠망과 관련이 있다는

35) 김근, 같은 책, 91쪽.

점 등을 들고 있다.³⁶⁾ 이처럼 묵가는 여타의 사상과 비교하여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속되진 못했다. 그러나 명의 단계를 논리적으로 나누고 명과 실의 관계 또한 복합적으로 사고한 것에서도 드러나는 그들의 과학성과 논리성은 그들 조직의 해체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사상사에서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언어학적 측면에 있어 개념추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언어와 인식대상 사이의 고리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언어관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吳敏江 撰, 孫啓治 點校, 《墨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6.
-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8.
- _____,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90.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馮友蘭, 《中國哲學史》, 香港: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92.
- 胡適, 《中國古代哲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71年版(1982).
- 벤자민 슈윙츠(Benjamin Schwartz)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출판사, 1996.
- 조셉 니담(Joseph Needham) 저, 李鏞浩·李鐵柱·林禎岱 역, 《中國的科學과 文明 II》, 서울: 을유문화사, 1991.
- Joseph Needham(연구조교 Wang Ling과 함께),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ume2, "History of Scientific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rst Published 1956, Reprinted 1980.
- 金學主, 《墨子》, 서울: 민음사, 1988.
- _____, 《新完譯 墨子》, 서울:明文堂, 2003.
- 尹武學, <墨子の名學에 대하여>, 《中國思想論文選集·諸子百家편(1)》, 서울: 불함문화사, 1996.
- 金槿, 《漢字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서울: 민음사, 1999.

36) 벤자민 슈윙츠, 같은 책, 245-246쪽.

- 廉丁三 주해, 《묵경》, 서울: 한길사, 2012.
- _____, <先秦時期 언어관에 대한 小考—孔子, 墨子, 荀子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49집, 2004.
- 알프레드 포르케(Alfred Forke) 저, 양재혁·최해숙 역주, 《중국고대철학사》, 서울: 소명출판, 2004.
- 김성희, 《공자의 정치사상—언어 소통과 정치 행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崔應賢, <論墨子的言語觀>,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 2006.11.
- 이경무, <공자의 '언(言)'과 도덕적 실천>, 《哲學研究》 第109輯, 2009.2.

< 中文提要 >

名和實的關係既是決定認識方式的基本要素, 也可成爲解決諸多現實問題的線索。因而在混亂中的春秋戰國時代, 諸子百家不得不關注以名和實的關係爲主的語言觀。對孔子來說, '名'是不可變的語言上的理想, 能夠反映出認識對象的本質特點, 所以所謂'實'也應該具有與名相符的面貌。這樣一來, 孔子的名實觀就成爲與他的思想一脈相承的語言觀。與之不同, 墨家否定'名'的絕對性。雖然他們也主張名和實需要相符, 可是不相信作爲理想的'名'的存在。就他們而言, "實"是可變的, "名"也隨之可變, 如果"名"不變, 卻不能反映出隨時變化的"實"的狀態。因此, 墨家把"名"分爲達名、類名、私名等三種, 而與孔子不同, 這幾種"名"裡面沒有當爲的概念。本文就根據《論語》和《墨子》中的有關文字, 考察他們對名實關係的觀點和區別。

關鍵詞: 孔子、墨家、名實、語言觀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6. 30.	2013. 8. 5.	2013. 8. 19.	2013. 8. 22.	2013. 8. 31.